



▲사진: 홍보실 제공

‘2025 성탄 기념 점등 예배’ 개최

지난 4일 오후 5시, 우리 대학 본관에서 ‘2025 성탄 기념 점등 예배’가 열렸다. 류두현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대학 구성원들이 본관 2층 로비에 모여 예배에 참여했다. 이번 예배는 연말을 맞아 우리 대학이 매년 이어오고 있는 대표 행사로,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교는 선교봉사처 이진호 특임교수(목사)가 맡았다. 이 교수는 누가복음 2장 8-12절을 본 문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주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캠퍼스와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희망을 전하는 삶을 실천하자고 권면했다.

예배 후에는 본관 앞에서 점등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카운트다운과 함께 본관 외벽과 조형물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조명이 일제히 켜지며 성탄 분위기를 더했다. 교직원들은 점등

된 조명 아래에서 찬양을 함께 부르며 지역사회에 대한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다짐했다.

류두현 총장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 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성탄을 맞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번 행사가 다가올 2026년을 희망으로 맞이하는 점등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점등 예배는 단순한 교내 행사를 넘어 지역 교계와 연계해 진행됐다. 한편 전주시 곳곳에서도 같은 시기 트리 점등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학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학생취업처, 제1회 학생성공주간 성공적으로 마쳐



▲사진: 손민기 기자

우리 대학은 지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스타센터 광장 일대에서 ‘2025학년도 제1회 학생성공주간(JJ Student Success Week)’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성공센터가 주관해 학생성공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나의 성공이 대학의 성공, 그리고 지역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라는 주제 아래 재학

생들이 학업과 진로,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 이룬 성장과 성취 사례를 공유하고, 서로의 성공을 응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학생성공 우수사례 공모전 ▲성공사례 발표회 및 전시회 ▲성공 토크콘서트 ▲학생성공지원 부스 ▲동아리 공연 등으로 구성되어 다채롭게 운영됐다.

성공 토크콘서트는 우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 발표를 맡아 경험을 공유했다. 태권도시범단 ‘싸울야비’ 주장, 하승완 인기도서 작가, 유명 기업에 취업한 동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담을 나누어 청중들에게 영감을 전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우는 “여러 부스에서 제공한 체험 활동도 하고,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다”라며 “사회봉사센터에서 나눠준 봉어빵 덕분에 추운 날씨에도 따뜻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학생성공센터 이석한 센터장은 “제1회 학생성공주간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학생이 자신의 삶과 도전을 되돌아보며 자신만의 성공을 설계하고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라며 “이를 타인과 서로 나누는 ‘성공 문화 확산의 출발점’으로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학생성공센터는 학업, 진로, 비교과, 대학 생활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 학생 개개인이 자기 주도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2026학년도 '내일' 총학생회 공청회 개최

제53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공청회가 지난 11월 20일 스타센터 107호에서 개최됐다.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내일'의 총학생회장 정준영 후보(가정교육학과 3)와 부총학생회장 이지석 후보(중등특수교육학과 4)는 ▲배리어프리 캠퍼스 활성화 ▲신입생 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개편 ▲복지 ▲시설 등 주요 공약과 관련해 언론사 및 학우의 질의에 답했다.

언론사 질의에서는 핵심 공약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계획을 둘러싼 질문이 이어졌다. 배리어프리 캠퍼스 활성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장애 학우들에게 최적의 이동 동선을 보장하는 점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관련 좌담회는 주 1회에서 월 1회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배리어프리 축제는 장애·비장애 학우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전용로를 설치하고, 축제 인력을 추가 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신입생 적응력 강화프로그램과 기존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정 후보가 "학생 자치기구 중심으로 신입생 적응에 초점을 맞춰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사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 이 후보는 "이전 총학생회가 실시한 설문에서 학점 확인, 졸업 이수 정보 조회 등 전주대 앱 관련 불편 사항이 확인됐다"라며, "학사지원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학 혜택 홍보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는 정 후보가 "현재 분산된 홍보 방식을 개선했"이라며 "장학·공모전 게시판 신설, 총학생회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활용한 홍보 다각화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학우 질의에서는 소통과 시설 관련 질문이 주를 이뤘다. 소통과 관련해 정·이 후보는 ▲학생회비 사용 내역의 결재 시간·이용 목적 명시 공개 ▲오프라인 소통함의 지속적 관리 등을 통해 투명한 운영과 활발한 소통을 약속했다.

시설 관련 질의로는 ▲냉·난방기 중앙제어 ▲가로등 점등 연장 ▲화장실 환경 개선 등이 제기됐다. 이에 관해 선본은 냉·난방기 제어와 가로등 점등 시간은 모니터링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며, 화장실 환경 개선은 학생회관을 중심으로 비누 디스펜서·비데 소독 디스펜서 설치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준영 후보는 "모두가 함께 기회와 참여를 꿈꾸는 내일, 여러분의 내일 총학생회가 안정된 소통으로 2026학년도를 만들어가겠다"라며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2025학년도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 개최

지난 12월 3일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수퍼스타 인증서 수여식이 열렸다.

수퍼스타 인증서는 우리 대학 슬로건인 '수퍼스타를 키우는 대학'에 맞춰 도입된 제도다. 수퍼스타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교양교과역량점수 400점, StarT역량점수 300점, 비교역량점수 80점 등 총 780점 이상을 취득하고, 자격증·외국어 성적 제출을 포함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학기에는 총 90명이 수상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인증서와 장학금 180만 원, 부상으로 우리 대학 마스코트 텀블러가 전달됐다.

행사에 참석한 류두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니 성실함과 열정이 느껴집니다"라며 "오늘 보여준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빛나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인증서 수여 후에는 황세정 학우(한식조리학과)의 소감 발표가 진행됐다. 그는 역량 점수에서 최고점을 기록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지나고 보니 즐겁고 재밌는 추억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퍼스타를 수상할 정도로 멋진 여러분에게도 좋은 미래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 축하 영상 시청과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수여식이 마무리됐다.

한편, 수퍼스타 인증에 필요한 역량 점수는 온스타 > 마이페이지 > 나의 역량개발 탭 영역별 이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유진 기자(yujin03120@jj.ac.kr)

▲사진: 김보라 기자

2026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 개표 결과

2026학년도 학생자치기구장 선거가 11월 24일~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전주대학교 inSTAR)으로 진행됐다. 이번 선거에는 총학생회와 중앙동아리연합회, 인문콘텐츠대학·사범대학·미래융합대학 3개 단과대학에서 모두 단일 후보가 출마해 찬반투표가 이뤄졌다.

미래융합대학은 다른 자치기구보다 앞서 20일 오후 6시~10시, 22일 오전 9시~오후 6시에 투표를 진행했으며, 개표 결과 기호 3번 '하랑'이 당선됐다.

24일에는 오후 5시 기준 투표율 35%를 충족하지 못한 자치기구를 대상으로 투표 시간이 오후 6시 30분까지 30분 연장됐다. 그 결과 중앙동아리연합회 기호 5번 '영원', 사범대학 기호 4번 'on:U', 인문콘텐츠대학 기호 2번 'US'가 각각 당선됐다. 투표율 35%에 미달한 총학생회는 19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연장 투표를 실시해 기호 1번 '내일'을 최종 당선자로 확정했다.

총학생회는 유권자 8,575명 중 3,033명이 투표해 투표율 35.37%를 기록했으며, 찬성 2,790표, 반대 54표, 무효 189표로 '내일'이 당선됐다. 중앙동아리연합회는 유권자 99명 중 48명이 참여해 투표율 48.49%를 보였으며, 찬성 46표, 반대 2표, 무효 0표로 '영원'이 당선됐다.

미래융합대학은 유권자 262명 중 119명이 투표해 투표율 45.42%를 기록했으며 찬성 96표, 반대 23표, 무효 0표로 '하랑'이 당선됐다. 사범대학은 유권자 681명 중 263명이 투표하여 투표율 38.62%를 보였고, 찬성 252표, 반대 11표, 무효 0표로 'on:U'가 당선 됐다. 인문콘텐츠대학은 유권자 508명 중 205명이 투표해 투표율 56.25%를 기록했으며, 찬성 202표, 반대 3표, 무효 0표로 'US'가 당선됐다.

| 김주은 기자(202315018@jj.ac.kr)

전주대신문 1965년 5월 15일 창간

(우 550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미디어센터 운영실 063) 220-2441
대학신문사 편집실 063) 220-2442

발행인 | 류두현
주 간 | 최소담
편집장 | 전지은

편집: 대학신문사 편집부
인터넷신문: jj.ac.kr/jjnews
e-ISSN 3022-8212

전주대, 캠퍼스의 오늘을 비추다

전주대 도서관, '2025 제이제이랜드: 책과 환상의 나라' 독서주간 운영

전주대학교 도서관이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2025 제이제이랜드: 책과 환상의 나라'(이하 JJ랜드)를 주제로 독서주간을 운영하며 전시·체험·퀴즈·특강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이색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을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새롭게 경험했다.

이번 독서주간은 5일간 교내 도서관 곳곳에서 진행됐으며, 'JJ랜드'의 콘셉트에 맞춰 전시와 체험, 참여형 이벤트를 하나의 축제처럼 구성했다. 도서관 측은 "독서를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놀이 요소를 더했다"라고 설명했다.

11월 19~20일에는 '내 손에 담기는 미니북 키팅'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노벨문학상 수상작과 베스트셀러 도서를 모티프로 한 우드락 미니북 키팅을 직접 제작하며, 좋아하는 책을 일상 속 작은 굿즈로 간직하는 시간을 가졌다.

같은 기간 진행된 '오싹오싹 보존서고'는 제한 시간 안에 보존서고 이용과 관련된 퀴즈를 풀어 탈출하는 방식의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평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을 탐험하면서 도서관 이용 규칙과 자료 보존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17~21일 상시 운영된 '미스터리 북' 행사에서는 책의 제목을 숨기고 간단한 단서만 제시한 뒤, 이용자가 이를 맞히는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추리 과정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책을 새롭게 접할 수 있었다.

'나쁜 기억 지우기, 좋은 기억 간직하기'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잊고 싶은 기억을 털어내고, 간직하고 싶은 기억을 적어 '좋은 기억 트리'에 붙였으며, 슈링클스 만들기를 통해 개인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오늘의 별자리 행운 도서' 코너에서는 12 별자리 추천 도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별자리에 해당하는 '랜덤 행운 도서'를 대출해 가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별자리 운세를 보듯 가볍게 즐기면서도 예상치 못한 책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독서의 폭을 넓혔다.

'도서관 속 명화 전시'에서는 유명 화가들의 대표 작품을 전시해 학생들이 일상에서 미술 작품을 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일파스텔 체험이 마련돼 명화를 보고 직접 그림을 그려보며 미술과 독서를 연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19~20일에는 '소극장 영화 상영회'가 열려 학생 추천작과 테마별 영화를 상영했다. 조용한 열람실 이미지를 넘어 도서관이 영상 콘텐츠와 토론이 공존하는 문화 공간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8일에는 '캔버스' 이성국 작가를 초청한 인문학 특강이 열렸다. 작가는 창작 과정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 문학·예술·일상의 연결점을 전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참석 학생들은 "책을 읽는 일뿐 아니라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19일에 진행된 '도전! 도서관 골든벨'에서는 도서관 이용 규칙과 독서 상식을 주제로 한 퀴즈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게임 형식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다시 익히며 도서관 활용 능력을 높였다. 우승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제공됐다.

도서관은 이번 독서주간을 통해 'JJ랜드: 책과 환상의 나라'라는 슬로건처럼 도서관을 즐거운 체험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며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냈다. 전시·체험·특강·퀴즈가 어우러진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대출·반납을 넘어 '머무르고 싶은 도서관'을 향한 전주대학교 도서관의 변화를 보여준 자리였다.

기사 | 마경진 기자(alfpwnsg12@jj.ac.kr)

대학 본관에 '전범 사진' 버젓이 설치... 이유는 파악불가

우리 대학 본관 1층 J-스퀘어에 2차 세계대전 전범 관련 책임자인 아돌프 히틀러와 라인하르트 트리스탄 오이겐 하이드리히(이하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사진이 부착돼 있던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 부서인 창업지원단은 문제 제기 직후 즉시 철거 조치를 했으나, 해당 사진이 게시된 이유는 여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J-스퀘어는 스타트업과 창업 활동에 영감을 주기 위해 조성된 공간으로, 벽면에는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등 세계적인 혁신 기업가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아돌프 히틀러 사진 2장과 나치 독일의 핵심 전범인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 사진 3장이 함께 발견됐다. 한두 장이 실수로 섞인 수준이 아니라, 총 5장의 전범 관련 사진이 버젓이 전시돼 있었던 것이다.

관련 부서인 창업지원단은 해당 사진들이 걸려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설치 배경 또한 불명확하다. 창업지원단에 따르면 해당 사진들은 2017년에서 2019년 사이에 부착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실무 담당 직원이 이미 퇴사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서 내부에서도 사진이 어떤 경로를 통해 무슨 의도로 설치됐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창업지원단은 손이 닿는 위치의 사진은 즉시 철거하고, 제거가 어려운 사진은 임시로 가리는 조치를 취한 상태다.

기사 | 손민기 기자(minki70064@jj.ac.kr)



▲ J-square에 두 전범의 사진이 설치되어 있다. 이후 철거된 모습이다.

작은 인형 하나의 온기...사범대학, 기부 캠페인 진행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가 연말을 앞두고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한 인형 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약 열흘간 진리관 로비에서 열렸으며, 사범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학생들이 집이나 기숙사에 보관 중이던 인형을 가져와 로비에 마련된 수거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새 제품뿐 아니라 상태가 양호한 중고 인형도 기부할 수 있다. 모인 인형은 삼성휴먼빌에서 생활하는 아이들과 굿윌스토어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직원들에게 전달됐다. 굿윌스토어는 기부받은 물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직원 급여 등에 활용됐다.

수거함 옆에는 참여 여부를 기록하는 서명지가 비치돼 기부 참여 현황을 함께 기록했다. 기부된 인형은 지난 12월 5일 전달식을 통해 최종 전달됐다.

이번 캠페인은 연말을 맞아 학내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사범대학은 인형 기부라는 비교적 부담 없는 참여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

문의 사항은 사범대학 행정실(063-220-2291) 또는 학생회실(063-220-2454)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사범대학은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학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사 | 김소울 기자(soyul06@jj.ac.kr)

디자인 | 오수현 기자(dhtngus0227@jj.ac.kr)

2025 전주대학교 졸업전시회

한 해의 끝, 새로운 시작

공연방송학과 졸업전시회

공연방송연기학과 제24회 졸업 공연 '존경하는 선생님' 개최

지난 11월 21일과 22일, 예술관 JJ아트홀에서 공연방송연기학과 제24회 졸업 공연 '존경하는 선생님'이 무대에 올랐다. 이번 공연은 4학년 학생들이 기획·연출·연기·조명 전 과정을 직접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작품은 러시아 현대극을 대표하는 극작가 류드밀라 라주몹스까야의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을 원작으로 한다. 라주몹스까야는 러시아 사회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인간의 내면과 윤리적 딜레마를 섬세하게 묘사해 온 작가로, 해당 작품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다루며 러시아 연극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이번 졸업 공연에서는 배경을 2020년대 한국으로 옮겨 고등학생들이 내신 점수를 바꾸려는 이야기로 재해석했다.

이야기는 생일을 맞아 조용한 저녁을 보내던 고등학교 교사 '은영'의 집에 '태현', '지훈', '라희', '현우' 네 명의 학생이 찾아오면서 시작된다. 잠시 화기애애한 담소가 이어지지만, 곧 학생들은 학교 급고의 열쇠를 요구하며 '은영'을 찾아온 진짜 이유를 밝힌다. 시험 성적을 고치기 위해 답안지에 접근하려는 것이었다. 은영이 거절을 표하자 학생들은 설득과 협박, 회유를 반복하며 압박을 더해 간다.

공연 연출을 맡은 신혜빈 학우는 "연출은 한 명이지만 무대 구성원은 많다 보니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오늘 공연이 시작되자 각자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에 안심했고, 앞으로의 공연도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류경호 지도교수는 "이번 공연이 많은 훈련과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이었으면 한다"라고 학생들에게 조언했으며, "무대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사 | 오유진 기자 (yujin03120@jj.ac.kr)



▲ 사진: 김예진 기자

시각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시각디자인학과 제43회 졸업전시회 'Saving the End' 개최

시각디자인학과가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스타센터 3층 아트갤러리에서 제43회 졸업전시회 'Saving the End'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4년간의 학업을 마무리하며 선보이는 창의적 결과물로, 다양한 시각 언어와 디자인적 해석을 담아냈다.

전시는 총 네 개의 디자인 과목으로 이루어졌다. '비주얼 아트디자인' 분야는 시각적 표현의 가능성을 폭넓게 실험한 작품들로, 비주얼 아트 작업부터 제품 광고 포스터까지 개성 있는 시각 언어를 볼 수 있었다.

'패키지디자인' 분야는 직접 개발한 브랜드와 기존 브랜드를 새롭게 리뉴얼한 작업이 중심을 이뤘다. 브랜드 아이덴티티(BI)와 그래픽 모티브 개발 과정을 프로세스 북으로 정리해, 관람객들이 디자인의 전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미디어 콘텐츠디자인' 분야에서는 영상과 인터랙션을 결합한 실험적 작업이 이목을 끌었다. 약 30초에서 1분 길이의 영상과 함께, 창작 의도와 연출 과정을 설명한 패널이 배치돼 작품 이해를 도왔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영상디자인'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개인별로 기획한 2~4분 분량의 영상을 통해 창의적인 시각 스토리텔링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자신만의 영상미를 완성했다.

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전시를 준비하며 협력과 책임의 중요함을 배웠다"라며,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뿌듯하다"라는 말을 통해 준비위원회 모든 일원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

기사 | 마경진 기자 (alfpwnsgh12@jj.ac.kr)



▲ 사진: 김보라 기자

예술관 화재 TF팀 인터뷰



Q1.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더불어 전주대학교 예술관 화재 TF팀 구성원과 주요 역할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 지원실 문진영 과장입니다. 전주대학교 예술관 화재 TF팀 은 이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캠퍼스 전반의 안전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무처장이 위원장을 맡아 팀을 총괄하고 있으며, 경영대학 김광국 명예교수가 보험 자문을 담당해 보상과 관련한 전문성을 보태고 있습니다. 시설 지원실장은 시설 복구와 안전 점검을, 총무지원실장은 행정 지원을, 기획예산실 장은 예산 확보와 공간 재배치를, 문화융합대학 실장은 학생과 이용자의 민원 대응을 맡고 있습니다. 재무지원실 담당 과장은 재물 관리, 시설 지원실 담당 과장은 시설 및 보험 실무를 책임지며,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한 팀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TF팀은 화재 피해를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보다 안전한 캠퍼스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Q2. 예술관에 화재가 발생한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사고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수습하고 있나요?
A2. 화재 발생 직후부터 대학은 TF팀을 중심으로 사고 수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TF팀은 공간 임시 재배정, 화재 현장 조치, 보험 절차라는 세 축에 초점을 맞추어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술관 4층 화재 공간과 인접 구역은 모두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건물 3층 강의실과 VD Studio 등으로 수업을 신속히 재배정해 학사 일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문 용역을 통해 실내 공기질 유해물질 검사를 두 차례 실시해 안전 사용 가능 수준을 확인한 뒤, 4층 바닥·벽체 분진 제거, 화재 호실 철거·청소, 전 층 외부 창호 및 외벽 고압 세척을 일주일간 집중적으로 진행해 냄새와 분진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아울러 손해사정사의 현장 조사는 완료되었으며, 현재 건물·시설·집기비품 등 자산 피해 규모를 산정 중입니다. TF팀은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3. 화재 원인은 무엇인가요?
A3. 화재 원인은 현재 관계 기관에서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할 소방서와 경찰 과학수사센터가 합동 감식을 통해 발화 지점과 경위, 전기 기기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를 반영해 안전 수칙 정비 등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Q4.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4. 피해 범위는 예술관 4층 로비를 포함한 우측 전체입니다. 피해 금액은 손해사정사가 산정 중이며, 건물·시설뿐 아니라 집기 비품 등까지 포함해 신속히 보상 절차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Q5. 정상 복구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A5. 현재 체계적인 복구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보험사와 피해 보상액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 피해 복구 전문 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2월까지 화재 피해 구역 전체에 대한 복구 공사를 집중적으로 수행해 시설·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는 예술관 전 공간을 정상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 과정에서 학사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사 기간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각 공정별 위험 요소를 점검하여 신속하고도 안정적으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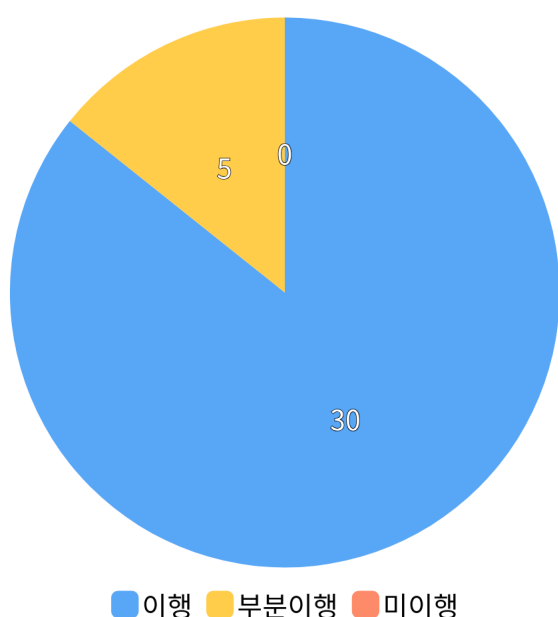
Q6. 대학 시스템 점검이나 보완 계획의 필요성은 없나요?
A6. 이번 화재를 계기로 대학 차원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 예방 안내 공문을 전 부서에 배포해 기본 수칙을 재안내했고, 사무실과 연구실에서는 개인 전열기기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무인경비 시스템 외에 별도로 잠금장치를 추가해 두는 관행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고, 각 공간에서 사용 중인 개인 난방용품 실태를 전수 조사해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캠퍼스가 보다 안전한 교육·연구 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Q7.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학생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일까요?
A7.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학생 여러분의 일상 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동아리방에서는 개인 전열기기(전기매트·히터 등)를 반입하거나 사용하는 일을 삼가하고, 취사나 숙식처럼 화재 위험을 높이는 행동도 자제해 주셔야 합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물 내부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않고 반드시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하지 않는 전 기제품의 플러그를 반드시 뽑아 두고, 멀티탭을 과도하게 연결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전기 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캠퍼스의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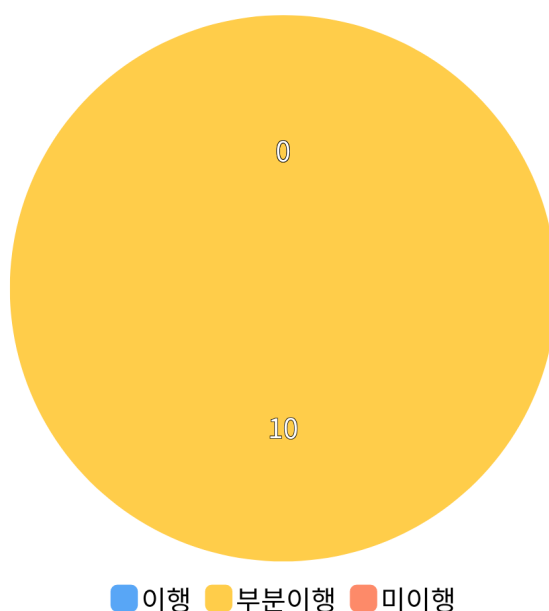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 공약 이행 점검

2025학년도 학생 자치 기구 임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해 대부분의 학생 자치 기구 단위가 선출되지 않아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됐던 점을 고려하면, 학우들 입장에서는 올해 학생 자치 기구의 공약 이행 여부가 더욱 크게 와닿았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올해 활동한 총학생회와 중앙동아리연합회, 단과대학 학생회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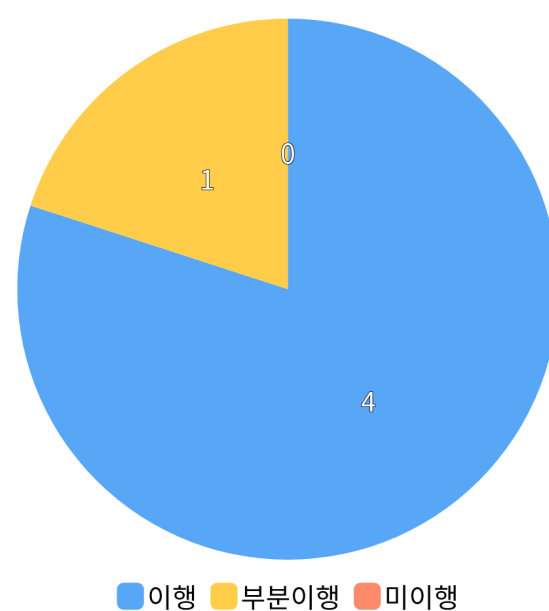
[총학생회 공약 이행 도표]



주요 공약 도표



시설 공약 도표



세부 공약 도표

결 총학생회

총학생회는 주요 공약 6개와 건물별 시설 공약, 세부 공약 5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주요 공약은 6개 중 5개가 이행됐다.

▲‘대동단결’ 공약(전주대 대통합 축제)은 연예인 섭외를 위한 음악 장르 설문조사, 공모전을 통한 굿즈 제작, 배리어프리 페스티벌, 기숙사 통금 완화 등으로 진행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결정적인 순간’ 공약(수강 신청 시스템 개편)은 대부분 실현 가능한 기능으로 판정돼 내년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대학 본부와 협의를 마쳤다. 추가 수강 바꾸니 설정과 바꾸니 정정 기간 연장은 올해부터 적용됐다.

▲‘고민 해결’ 공약(성적 이의 제기 시스템 개편)은 학생 의견을 조사해 대학 본부에 전달한 상태다.

▲‘발전을 위한 비결’ 공약(공모전 다각화)은 수요 조사 후 수퍼스타칼리지에 의견을 전달했다.

▲‘끝가지 않을 연결’ 공약(중간 평가회 도입)은 6월 19일 수퍼스타홀에서 시행하며 이행됐다.

이행하지 못한 공약은 ‘스타센터 환경 개선’이다. 해치라운지 개선은 학생성공센터 이전으로 실행이 어려워졌으며, 지하 주차장 천장 누수 보수 공약은 대학 본부와 논의를 거쳤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시설 공약은 대부분 이행됐다. ▲평화관 지하 환풍 시스템 점검 및 보수 ▲공학관 주차장 문제 해결, 공학관 조도 개선 건의 ▲자유관 여름철 방역 사업 ▲진리관 배리어프리 활성화 및 방충망 개선 ▲예술관 소리연 가로등 점등 시간 연장 ▲지역혁신관 가로등 연등 시간 연장 ▲천장관 지하 누수 관련 시설 보수 및 매립등 설치, 가로등 연등 시간 연장 등이 추진됐다.

반면 기숙사 관련 공약(통금시간 완화, 기숙사 룸메이트 매칭 시스

템 개편)은 기숙사운영위원회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다. 도서관·운영관 운영시간 연장 공약도 예산 문제로 불가 판정을 받았으나, 시험 기간에 한해 확대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로 근처 헬스장과 제휴해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진리관과 천장관 엘리베이터 개선 공약은 엘리베이터 내 거울 설치를 요청한 내용으로, 학생의 이동 안전을 위해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대학 본부는 “엘리베이터 대부분이 면적이 넓으므로(휠체어가 움직여도 안전해)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부 공약은 도서관과 기숙사 관련 공약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행됐다.

▲도서관과 기숙사 공약(보강 주간 도서관 운영시간 확대, 생활관 통금 시간 완화 건의, 생활관 입사비 분할 납부 건의, 생활관 입사 신청 기간 연장 건의, 생활관비 납부 기간 연장 건의)은 상기 언급한 이유로 진행하지 못했다. 기숙사 Express(기숙사 입사 이사 지원) 공약은 실행됐으며 ▲학사 공약(기본 자격증 비교과 과목 증설, 정책 및 교양과목 공모

전 증설, 학년별 수강 신청 제도 건의)은 현재 대학 본부에 전달된 상태이다. ▲복지 공약(시험 기간 캠퍼스 인근 카페 운영시간 확대, 애플리케이션 통한 제휴업체 사용 다각화, 시험 기간 독려 이벤트)은 모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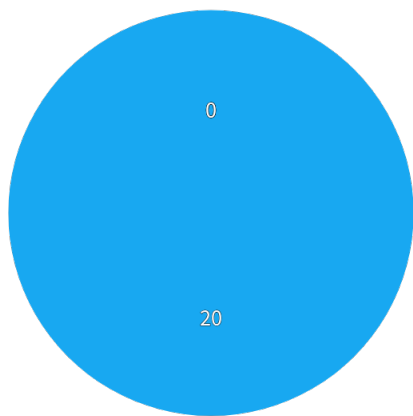
행됐다. ▲문화 관련 공약(농촌봉사활동 추진, 국토대장정 추진, 지역 주요 문화시설과 연계사업, 축제 준비 TF팀 기획, 축제 기간 통금 해제 건의, JJ리그 활성화)도 모두 이행됐다. ▲소통 관련 공약(인포그래픽을 통한 투명한 재정관리, 완산경찰청과 연계하는 캠퍼스 폴리스 운영 확대, 에스원 인터폰 개선 건의, 교내 통행로 환경 개선)은 교내 통행로 환경 개선 이외 모두 이행됐다.

최의지 총학생회장은 “학생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공약이 많지 않아 어려움이 컸다”라며 “마지막까지 본부와 소통해 실현할 수 있는 공약은 내년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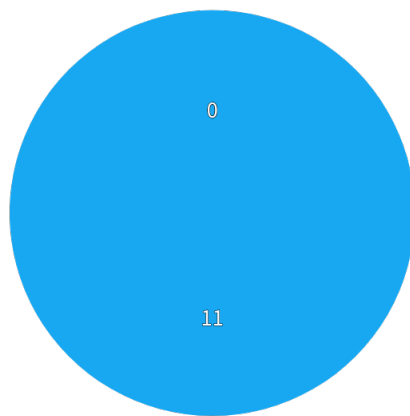
2025학년도

학생자치기구 공약 이행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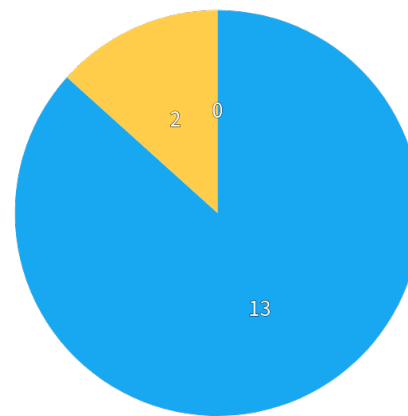
[기타 학생자치기구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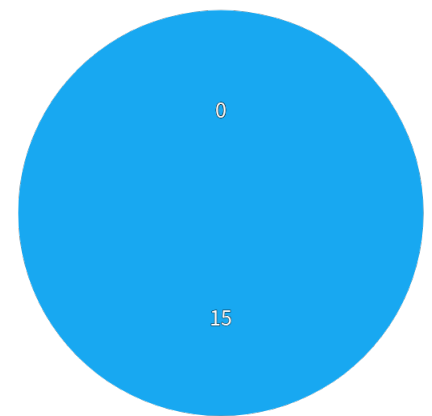
■ 이행 ■ 부분이행 ■ 미이행
중양동아리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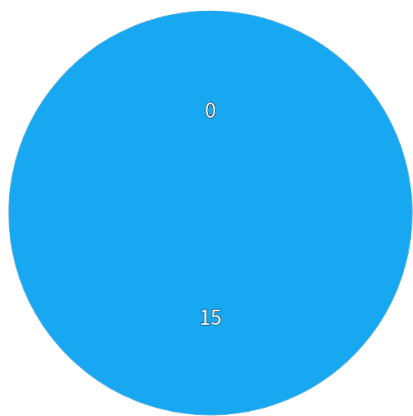
■ 이행 ■ 부분이행 ■ 미이행
인문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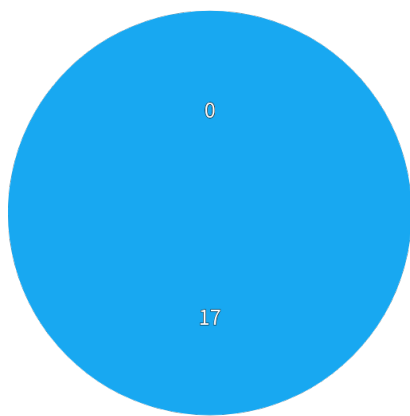
■ 이행 ■ 부분이행 ■ 미이행
경영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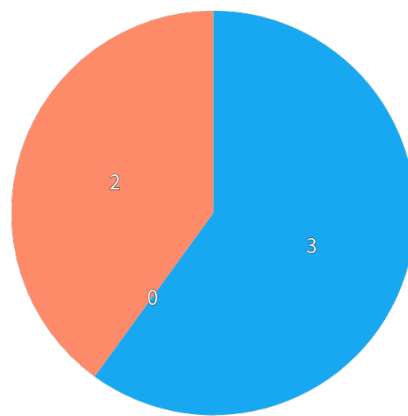
■ 이행 ■ 부분이행 ■ 미이행
의과학대학



■ 이행 ■ 부분이행 ■ 미이행
문화관광대학



■ 이행 ■ 부분이행 ■ 미이행
사범대학



■ 이행 ■ 부분이행 ■ 미이행
미래융합대학

NOW 중양동아리연합회

중양동아리연합회는 주요 공약 4개(대표자 회의 개편, NOW만의 농촌봉사활동, 학생회관 정기 점검 시스템 도입, E-SPOTV NOW)와 세부 공약 16개(동아리 월간 신문 출간, 공동 구매 제도 도입, 화장실 탈취제 비치, 아나바다 플리마켓, 장학금 관련 정보 업데이트, 보조배터리 대여 서비스 도입, 학생회관 내 소통함 설치, 공약 이행 게시판 설치, 복지 물품 확대, 카카오톡 채널, 게시판 활성화, 다양한 제휴업체 확대, 동아리 소식지 활성화, 프린트 지원 서비스, 중간 기말 이벤트, 끊임없는 NOW)를 모두 이행했다.

결 인문콘텐츠대학 학생회

인문콘텐츠대학 학생회는 주요 공약 4개(결속의 인콘 연합 M.T, 블루밍 데이, 기승전결; 콘텐츠 공모전, 인사가 진리지)와 세부 공약 7개(농촌봉사활동, 인콘 회담, 학생회 예산 사용 내역 공개, 복지 서비스, 제휴 플랫폼, 시험 기간 과방 24시간 개방, 인콘대 이용 시설 점진적 개선)를 모두 이행했다.

결 경영대학 학생회

경영대학 학생회는 주요 공약 5개와 세부 공약 10개 중 주요 공약 4개(한결같은 마음(콘텐츠), 다가오는 물결(학사), 함께하는 결정(학과), 새로운 결실(동아리)), 세부 공약 9개(보드게임 올림픽, 벚꽃 소개팅, 자유관 심야극장, 자유관 심야식당, 자유관 피크닉, 무료 프린트 서비스, 시험 기간 조식 제공 이벤트, 복지 물품 대여 서비스, 경영대학 미화의 날)를 이행했다. 아직 이행하지 못한 주요 공약인 '하나되는 연결'은 유학생과 함께하는 전주 탐방 프로젝트다. 관련 계획을 수립했으나, 유학생 사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진행하게 된다면 종강 전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이행하지 못한 세부 공약은 '자유관 엘리베이터 거울 설치'로, 대학 본부에서 설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진행되지 않았다.

결 의과학대학 학생회

의과학대학 학생회는 주요 공약 5개(천장관 지하 환경 개선, 천장관 야간 통행

로 개선, 장학 퀴즈-도전 천장벨!, 농촌봉사활동, 의과학대학 체육대회 개최)와 세부 공약 10개(개강이벤트, 천장관 지하 음식물 처리기 설치, 무료 복사소, 천장 E-sports 개최, 시험 기간 이벤트, 택배 보관함 서비스, 학기별 공약 이행을 공개, 복지 물품 대여 서비스 및 복지 물품 확대, 학기별 화장실 카메라 단속, 학기별 학생회비 사용 내역 공개)를 모두 이행했다.

CONNECT:U 문화관광대학 학생회

문화관광대학 학생회는 주요 공약 5개(평등! 배달왔습니다:문광 딜리버리, 계속 생각나, CONNECT 말이야:수신 추가, LIGHT ON, 문광 시네마, MOONLIGHT:U. 야시장, 우리의 연결은:연합 MT)와 세부 공약 10개(문광 야간 편의점, 복지 물품 확대, 시설 보수, 문광 캘린더, 게시판 활성화, 미니 스타, 체육대회, 농촌봉사활동, 게릴라 이벤트, 렌탈 커넥트)를 모두 이행했다.

결 사범대학 학생회

사범대학 학생회는 주요 공약 6개(대동단결:전주대 대통합 축제, 진리관 청결, 성공의 비결, 베푸는 물결, 근심 걱정 해결, 인사가 진리지)와 세부 공약 11개(화장실 물레카메라 단속, 한문교육과 학회실 근처 흡연장으로 인한 문제점 인지 및 지붕 설치 건의, 엘리베이터 거울 설치 건의, 교육 제휴 협약 체결, 시험 기간 24시간 강의실 개방, 시험 기간 이벤트 진행, 매달 월간 소식지 발간, 학과 행사 SNS 홍보, 훈장골 선호도 조사, 농촌봉사활동 진행, 하계 졸업식 진행)를 모두 이행했다.

하랑 미래융합대학 학생회

미래융합대학 학생회는 주요 공약 5개를 제시했다. 이 중 3개(미래융합대학 전용 강의실 확보, 미래융합대학 교양과목 개선, 신입생 일대일 멘토링)를 이행했고, 미래융합대학 단과대학 확보 공약과 학과별 사무실 확보 공약은 평일과 주말 합쳐 3일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미래융합대학 학생들의 현실 여건상 실현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학생 자치 기구가 공약을 이행한 가운데, 시설 보수와 관련된 공약들 대부분이 대학 본부와 협의 과정에서 좌절됐다. 등록금 인상도 학생들이 양보한 가운데 정작 제일 많이 체감되는 시설 보수 요청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차기 학생 자치 기구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시설 보수를 위해 공약 실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5학년도 학기가 마무리된 가운데 한 해 동안 고생한 학생 자치 기구에 수고했다는 박수를, 차기 학생 자치 기구에게는 기대와 격려를 보내고자 한다.

우리 일상을 비추는 언어와 안전

붕당과 민주주의

어느 사회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세우며, 생각을 달리 하는 사람들과는 심한 갈등(葛藤)을 빚기도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붕당(朋黨)’이라는 어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 ‘朋(붕)’은 갑골문의 자형 [𡵓]에서 보듯 조개를 두 줄에 꿰어 늘어뜨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래 ‘돈 꾸러미’를 뜻하는 글자였는데 본래의 뜻이 약해지고 ‘나란한 모습’의 ‘친구, 벗’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학에서는 한 인간이 보다 성숙해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는 존재로 벗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반드시 요구된다고 생각했던 다섯 가지 윤리인 五倫(오륜)에서도 그 마지막 자리에 ‘朋友有信(붕우유신; 벗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을 두었고, 『論語(논어)』 「淵(안연)」 편에서는 “以文會友(이문화우) 以友輔仁(이우보인)[(군자는) 학문을 통해 벗을 모으고, 그 벗을 통해 자신의 仁(인)을 보완한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벗의 중요성을 심분 강조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글자 ‘黨(당)’은 집을 뜻하면서 발음을 표시하는 ‘尙(상)’과 아궁이를 뜻하는 ‘黑(검을 흑)’가 결합된 글자로 소전 [黨]을 살펴보면 집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어둡다, 선명하지 않다’는 뜻을 가진 말이었는데, 주나라 때 500가구를 一黨(일당)으로 묶는 제도와 관련하여 ‘무리’라는 뜻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朋黨(붕당)은 본래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뜻하는 말이었지만, 역사적으로는 정치적 黨派(당파)의 의미로 사용되었

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도 조선시대의 四色(사색) 黨爭(당쟁)과 연관되어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놓고 보면 ‘朋黨(붕당)’이란 말을 그리 敬遠視(경원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란 서로 다르다는 본질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중요한 것은 ‘朋黨(붕당)’ 자체가 아니라 그 붕당이 무엇을 주장하는가, 즉 그 붕당의 지향과 정체성일 것입니다.

北宋(북송)의 歐陽修(구양수; 1002~1072)는 그의 <朋黨論(붕당론)>에서 “붕당에 관한 설은 예로부터 있었으니 오직 바라는 것은 임금이 그 붕당이 군자인지 소인인지 분별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개 군자는 군자와 더불어 道(도)를 함께 하여 붕당을 이루고, 소인은 소인과 더불어 이익을 함께 하여 붕당을 이룹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글은 자신을 붕당주의자로 몰아붙여 비난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 지어진 것인데, 핵심은 붕당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군장의 붕당인지 소인의 붕당인지를 잘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정 시대에는 그 분별의 주체가 임금이었지만, 민주 시대에는 그 분별의 주체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붕당들의 메시지를 붕당 간의 싸움으로 置簿(치부)하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옳은 소리를 하는지, 누가 우리를 속이는 지 귀를 세우고 판단해야 합니다. 是非(시비; 옳고 그름)를 따지지 않고 둘 다 싸잡아 비판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糊塗(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형술 교수
(사범대학 한문교육과·부교수)

겨울철 화재 예방 수칙

전주대학교 예술관에서 최근 발생한 화재 사고가 겨울철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지난 11월 17일 오전 11시 50분경 예술관 4층 교수 연구실에서 불이 나 복도 천장과 유리창 일부를 태웠다. 소방 인력 20여 명이 출동해 25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나, 연구실 1곳과 내부 집기, 4층 일대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3천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건물 내 학생과 교직원 수십 명이 대피했고, 1명이 연기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검은 연기가 건물 외벽을 뒤덮고 불꽃이 창문 밖으로 치솟는 장면이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가 교수 연구실에서 시작된 점을 확인하고 전열기기 과열 또는 난방용품 부주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❶ 겨울철 화재 급증 배경

겨울철에는 기온 하락과 건조한 공기로 인해 화재 발생률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겨울 전국 화재 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난방기 과열, 전기 콘센트 과부하, 부주의한 화기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기장판이나 히터 사용이 잦은 대학 연구실 역시 화재 위험이 높아 학생·교직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실정이다.

전라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노후 전선의 합선과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이 화재 유발한다”라며 “난방기 주변 가연물 제거와 KC 인증 제품 사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명·건조기 사용이 많은 예술관과 같은 공간에서는 작은 과열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❷ 화재 예방 수칙

난방기구 안전 사용: 전기난로·히터는 벽이나 커튼 등 가연물에서 1m 이상 떨어뜨리고, 장시간(4시간 초과) 사용을 피한다. 과열 시 즉시 플러그를 뽑고 주변 인화물질(종이·라이터)을 치운다.

전기 설비 관리: 오래된 전선·멀티탭은 즉시 교체하고, 콘센트에는 다중 기기 연결을 지양한다. 먼지가 쌓인 멀티탭은 전원 차단 후 마른 천으로 청소하며,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대기전력을 차단한다.

화기·가스 취급: 가스레인지 사용 전 환기하고, 정기적으로 누출 검사를 진행한다. 보일러실에는 가연물을 2m 이상 떨어뜨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실내 환경 조성: 습도 40~60%를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를 병행하고, 취침 전 전기제품 플러그를 뽑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K급 소화기를 실내 곳곳에 설치한다.

캠퍼스 특화 예방: 연구실·기숙사 전기 설비 점검을 정례화하고, 비상구·소화기 위치를 숙지한다. 야간 점검과 화재 경보기 테스트, 초기 진압 훈련도 필요하다.

전주대 학생들은 “예술관 화재 이후 캠퍼스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라며 정기 전기 점검과 소방 훈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 측은 겨울철 안전 캠페인과 취약 시설 조사에 나서며 소화기 보급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화재 재발을 막고 모두가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주대학교, 2025 성탄 기념 점등 예배 개최...지역사회에 희망의 빛 밝혀

전주대학교는 2025년 12월 4일(목) 오후 5시, 대학 본관 로비에서 '2025 성탄 기념 점등 예배'를 드리며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예배는 연말을 맞아 전주대학교가 매년 진행하는 대표적인 전통 행사로, 지역과 함께하는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설교 말씀으로는 선교봉사처 이진호 특임교수(목사)가 누가복음 2장 8-12절을 본문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 교수는 메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강조하며, 함께 모인 우리가 캠퍼스와 지역사회에서 빛과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당부했다.

말씀과 찬양 후 이어진 점등식에서는 본관 로비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조형 조명들이 일제히 밝혀지며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순간 로비는 성탄의 빛으로 가득 채워졌고, 교직원들은 환한 조명 아래 함께 찬양을 부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의 사명을 이어갈 뜻을 다졌다.

류두현 총장은 "전주대학교는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라며 "성탄의 빛을 따라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대학교의 이번 성탄 기념 점등 예배는 단순한 캠퍼스 행사를 넘어, 지역 교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주 시민들에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장이 되었다. 전주시 곳곳에서도 성탄 트리 점등과 찬양 축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주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꾸준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다.

선교지원실 최주희



밤의 속도

(익명 독자 투고)

하루가 너무 빨라
붙잡지 못한 말들이
주머니 속에서 서로 부딪힌다

괜찮다고, 아직이라고
스스로에게 몇 번을 말해도
시간은 늘 나보다 한 걸음 앞에 있다

그래도
오늘을 완전히 놓치진 않았다
숨 한번 깊게 쉬었고
너를 한 번은 떠올렸으니까

<정의를 생각한다>



한병수 목사
(대학교회 담임목사)

철야의 하늘이 새파란 고통으로 젖어둘 때, 나는 생각했다. 정의는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인가? 그것들은 사랑보다 먼저 서야 하는 기둥인가, 아니면 사랑이 낳은 열매인가?

정의와 공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한 땅에서는 사랑과 자비도 숙면에 들어간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까지 제빛을 내지 못하는 별들처럼, 사랑은 어둠 속에 웅크린다. 그 사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깨어날 때를 기다리며 조용히 숨을 고른다. 그 숨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등장이다.

정의가 흐르는 강처럼 골짜기를 채우고, 공의가 들관 위에 맑은 바람처럼 확산될 때, 비로소 사랑은 기지개를 켜다. 오래 접혀 있던 날개가 펼쳐지고, 움츠러져 있던 자비가 빛을 향해 몸을 일으킨다. 사랑은 언제나 관대하다. 그러나 불의 속에서는 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데 이는 사랑이 진리를 기뻐하기 때문이다. 진리가 억눌린

곳에서는 사랑도 환하게 웃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의가 바로 설 때 사랑은 힘을 얻고, 억울함이 풀리고 짓눌린 자가 일어나며 중요한 것이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를 잡을 때 비로소 사랑은 자신의 체온을 되찾는다. 공의가 무너진 곳에서는 사랑마저 왜곡되어 특혜가 되고, 자비는 방종이 되어 사람을 망가지게 한다. 그러나 공의 위에 선 사랑은 사람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상처 난 영혼도 건강하게 한다.

정의 없이 피어난 사랑은 금세 시들지만, 공의 위에서 자라는 사랑은 계절을 건디고 열매를 수시로 선물한다. 그런 사랑이 개인을 살리고 공동체를 윤택하게 한다.

교수칼럼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오단이 조교수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아프리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부모의 정성과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즉,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 속담은 대학 교육 환경에 적용될 수 있고 2025년 작금의 전주대에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대학은 더 이상 학문적 지식만을 전달하는 상아탑이 아니라, 한 명의 학생을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교육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럼, 전주대 교육공동체는 한 학생을 키우기 위해 어떠한가? 아니 우리는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지금 우리는 교수로 아니 인생선배로 대답할 수 있을까?

필자는 학생들이 대학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들은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능동적인 학습자로 변화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층적 사회적 지지망이 필수적이다. 교수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를 넘어, 인생 선배로서 모습을 보여야 한다. 행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맞춤형 지원을, 선/후배는 학업적 연대감을 강화하고 즐겁게 대학생활을 함께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공동체는 학생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협력, 공감, 사회적 책임감과 같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길러 주는 가장 중요한 배움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전주대는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를 창출할 사회 인재를 양성한다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는 대학이 단순히 학내 울타리 안에서의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학생을 키우는 ‘마을’이 되도록 경계를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실천하며 역량 강화

(Empowerment)를 경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필자는 대학 공동체가 지역 혁신의 동력이 되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체득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주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낭만 교수를 꿈꾸는 자로, 우리 전주대 교육 공동체가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따뜻한 지지와 견고한 연결 속에서 잠재력을 꽃 피우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If you want to travel fast, go alone. But if you want to travel far, go together.”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우리 전주대 공동체는 학생을 위해 긴 여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겨울이면 떠오르는 따뜻한 영화

리틀 포레스트



한겨울의 차가움은 때때로 마음의 온기를 더 선명하게 만든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 (2018)는 사회에 지친 청년들의 일상을 따라가며, 차갑고 고요한 계절 속에서 겹겹이 쌓여 있던 감정들을 드러낸다. 임용 시험과 생계를 동시에 버티던 혜원은 낮아진 자존감과 끝없는 피로 끝에 서울을 떠난다. 성인이 되어 마주한 현실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어느새 지쳐 있었고, 결국 어린 시절 떠나고 싶어 했던 고향으로 돌아간다.

혜원은 엄마와 살았던 빈집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직접 요리하며 겨울을 보낸다. 그곳에서 오랜 친구 재하와 은숙을 다시 만나고, 세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 각자의 자리에서 버텨내느라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각들을 되살린다. 영화는 혜원의 지친 마음이 고향의 계절을 지나며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따라간다.

영화는 사건보다 인물들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감정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살아내기 위해 버텨온 세 사람은 시간이 나면 혜원의 집에 모여 함께 요리를 만들어 먹는다. 그들의 만남에서는 오래된 소꿉친구만이 가진 친밀함이 드러난다. 우리가 떠올리던 추억의 풍경을 그들은 실제로 살아낸다. 부엌에 모여 계절에 맞는 음식을 만들고,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순간들은 겨울의 차가움을 잠시 잊게 한다. 차가운 계절이기에 사람의 온기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진다.

엄마가 혜원이 수능을 본 날 말도 없이 떠났던 것처럼, 혜원의 귀향도 처음엔 ‘도망’으로 불렸다. 그러나 도망이 반드시 비겁함을 뜻하지는 않는다. 어린 시절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에게 향하던 것처럼, 혜원은 지친 마음을 가지고 가장 따뜻한 자리로 돌아

온 것이다. 영화 후반부에 등장하는 엄마의 독백은 이 ‘도망’처럼 보였던 선택들을 다른 의미로 비춘다. 결혼하며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다시 하기 위해 떠났다는 엄마의 선택은, 아주심기처럼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 혜원도 서울에서 지친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잠시 머물고, 다시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온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멈춰 섰고, 그 멈춤을 통해 조금씩 단단해진다. 엄마에게 답장을 쓰는 장면에서 그 변화가 조용히 드러난다.

<리틀 포레스트>는 감정을 과도하게 흔들지 않는다. 절제된 서사가 오히려 이 영화의 축이 된다. 성인의 삶에서 밀려나기 쉬운 감정들—서운함, 어정쩡한 자존감, 설명하기 어려운 허기—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고 따뜻한 온기를 통해 회복된다. 겨울의 차가움 속에서야 작은 온기가 더 잘 보이듯, 영화는 우리가 일상에서 지나쳐온 따뜻함을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기사 | 조민영 기자(202315013@jj.ac.kr)

디자인 | 김예진 기자(ye_yejin@jj.ac.kr)



제목: 리틀 포레스트

감독: 임순례

장르: 드라마

러닝타임: 103분

개봉일: 2018년 2월 28

기자칼럼

‘분초사회’에서 나만의 속도 찾기

오유진 기자
(yujin03120@jj.ac.kr)

“79번 버스 언제와요?”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 한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버스 출발시간을 검색하니 15분 뒤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뒤돌아선 순간, 막 정류장에 도착한 버스에 올라탔다. 그 짧은 시간, 나는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시간을 계산하며’ 살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다양한 교통 애플리케이션은 버스 도착 예상 시간부터 환승 경로, 목적지 도착시간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최단 거리와 최소 시간을 자동으로 알 수 있다. <2024 트렌드 코리아>는 이 같은 시대상을 ‘분초 사회’라 규정한다. 시간의 효율성을 따지는 삶, 즉 시성비(時性比)가 중시되는 시대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장수 리스크’가 거론될 만큼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다.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 박지영 연구자는 현대 사회를 ‘가속화 사회’라고 설명한다. 기술이 속도를 높이면 경쟁의 강도도 따라 높아지고, 그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간에 쫓기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시간을 절약하려 할수록 시간이 부족해지는 역설적 상황. 비록 10년 전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잠시의 ‘빈틈’도 허용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 조급함이 느껴진다. 팟캐스트, 숏폼, 음악, OTT는 기다림의 시간을 공백이 아니라 ‘채워 넣어야 할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정보의 자극을 더 많이 접할수록, 인터넷 속 상향 평준화된 삶을 기준 삼을수록 정작 나만의 속도는 흐려진다.

그러다 문득 질문이 떠올랐다. 우리는 정말 시간을 잘 쓰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의 속도에 휘말려 살고 있는가. 효율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

도 높아진다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 짓눌리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며 졸업 전·논문·어학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은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학생들에게 시간의 압박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우리는 스펙을 쌓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나이대별로 정해진 기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한다. 그러나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가 곧 나의 속도일 필요는 없다.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정답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천천히 걸어야만 보이는 길이 있다. 멈춰 서야만 발견되는 기회가 있듯이 말이다.

속도를 늦추는 선택은 ‘뒤처짐’이 아니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먼저, 나의 속도를 파악하는 일이다. 과제나 공부에 필요한 시간을 스스로 측정해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아는 것이 시작이다. 다음으로 타인의 불안과 나의 불안을 구분해야 한다. 주변에서 다들 하고 있어서, 혹은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 선택은 오히려 길을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일주일 중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기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이어갈 때 성장의 곡선은 더 오래 유지된다.

기술과 속도가 압축해 놓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 관리의 기술’이 아니라 ‘나만의 속도를 찾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한 해의 끝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면,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이며 그 시간을 어떤 속도로 살아갈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기자칼럼

대화 없는 판정, 공정성을 잃다

마경진 기자
(alfpwnsg12@naver.com)

전북 현대 타노스 코치를 둘러싼 인종차별 논란은 단순한 판정 시비를 넘어, 한국 프로축구 제도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지난 11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하나 시티즌전에서 타노스 코치는 김우성 주심의 판정에 항의하며 눈가에 검지를 대는 제스처를 취했다. 주심은 이를 즉시 인종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심판보고서에 기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심은 코치와 대화를 통해 맥락을 확인하지 않고, 영상과 자신의 주관적 해석만으로 결론을 내렸다. 성급한 판단은 단순한 오해를 증폭시켜 코치의 경력과 리그의 이미지까지 흔들어 놓았다.

이후 진행된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의 징계 결정 과정도 같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연맹은 11월 19일 열린 제14차 상벌위에서 타노스 코치에게 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2,0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는 주심의 보고서와 심판협회의 성명에 의존한 결과였다. 상벌위는 ‘슬랜트 아이’ 제스처의 보편적 의미와 지난달 19일 코치가 외친 ‘racista(인종차별주의자)’를 근거로 들었지만, 코치가 제출한 진술서-“핸드볼 파울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는 항의 의도였다는 취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타노스 코치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평소 인종차별과 거리가 먼 태도를 보여 왔으며, 구단 역시 영상 분석과 진술을 통해 인종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상벌위는 주심의 감정을 우선시하며 객관적 조사를 생략했다. 결국 코치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사임 의사를 밝혔고, 전북 구단은 재심을 청구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반발했다.

논란이 커진 가장 큰 원인은 경기 직후 주심의 대응이었다. 그는 통역

을 통해 “차별적 발언”이 있었다고 전달했지만, 코치와 직접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채 퇴장 판정과 보고서 작성으로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국 프로축구심판협회(KPFRA)가 즉각 “반인권적 행위”라는 성명을 내고 FIFA 제소를 예고한 것은 사실상 코치에게 해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여론 재판”으로 비쳤다.

만약 주심이 현장에서 코치의 의도를 물어보고 맥락을 확인했다면, 오히려 인한 충돌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상벌위 결정 후 김우성 주심이 SNS에 남긴 “잘못 본 게 아니라 잘못된 겁니다”라는 문장도 논란에 기름을 부으며, 심판의 주관적 판단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이어 전북 선수들이 SNS를 통해 “팀과 코치를 향한 비난이 과도하다”라며 항의했지만, 이미 나빠진 여론으로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제도의 취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종차별처럼 민감한 사안은 더욱 신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절차적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K리그의 대응은 국제 리그의 ‘무관용 원칙’을 차용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당사자 진술 청취를 소홀히 했다.

앞으로 K리그는 심판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 매뉴얼에 ‘대화 우선’ 원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엄격한 원칙도 공정한 절차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리그의 신뢰를 지키기 어렵다.

스포츠에서 공정성은 생명선이다. 심판의 성급한 판단이 남긴 타노스 코치 사건은, 이후에도 제도적 성찰 없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이번 논란이 K리그에 ‘듣기와 이해’의 문화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진정한 정의는 빠른 결론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시작된다.

JJU RISE Center Signs MOU with Five Local Universities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Lifelong Education System

Jeonju University (President Ryu Doo-hyun) announced on December 3 that it has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Gunjang University, Woosuk University, Jeonbuk Science College, Jeonju Kijeon College, Jeonju Vision College, and Howon University to build a sustainable lifelong learning ecosystem through the RISE Project.

The signing ceremony was attended by project leaders from RISE Track III-1 and Track III-2, along with key representatives from each participating institution. Attendees discussed cooperative strategies to maximize project outcomes and develop a sustainable lifelong education system for the region.

Under the agreement, the universities will actively collaborate in the following areas:

Joint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ter-university curricula and lifelong education programs

Co-development of tailored education models for diverse learners and joint cultivation of regional talent

Sharing and coordination of educational data to build and utilize a lifelong learning information base

Industry-university-regional cooperation activities that promote a regional lifelong learning ecosystem

Joint events, 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lifelong education成果 and best practices

Mutual support for additional activities aligned with the spirit and purpose of the MOU

Through this agreement,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s aim to establish a shared regional platform for lifelong learning and create an integrated collaboration system that links and leverages educational resources across universities. The universities plan to strengthen joint curriculum operations, enhance data-driven lifelong learning systems, expand industry-university-regional cooperation, and coordinate promotional efforts—ultimately fostering an interconnected learning ecosystem across the entire Jeonbuk region.

Professor Han Dong-soong, project director for RISE Track III at Jeonju University, stated, “This MOU carries significant meaning as it enables universities to share educational resources and lifelong learning capabilities to build a learning ecosystem in which the entire region grows together. We will actively contribute to nurturing local talent and strengthening lifelong education competitiveness through joint curriculum operations and expanded collaboration with industry and local communities.”

JJU RISE Center and Buan-gun Open Agri-Food S.M.A.R.T Training — Promoting Smart Innovation in the Local Agri-Food Industry —

Jeonju University (President Ryu Doo-hyun) and Buan-gun (Mayor Kwon Ik-hyun) held an opening ceremony for the Buan Agri-Food S.M.A.R.T Training Center on December 4 in Baekryeon-ri, Haseo-myeon, Buan-gun. The event was attended by Mayor Kwon Ik-hyun, Lee Eun-mi, President of the Jeonbuk Institute for Bioindustry Convergence, representatives from Doosan Robotics, and leaders from local youth agri-food organizations.

The Buan Agri-Food S.M.A.R.T Training Center is the first specialized smart-education facility in Jeollabuk-do, offering professional training in smart agriculture,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collaborative robotics for agri-food production and operations. In partnership with Buan-gun, Jeonju University’s RISE Center plans to develop the facility into a key educational hub that fosters a loconomy—a locally driven economic ecosystem.

With its opening, the center will provide tailored, hands-on training programs for young agri-food practitioners in Buan-gun. These programs will include practical sessions using smart devices and automated equipment, as well as product development workshops, enabling participants to effectively adapt to the smart transformation occurring across the agri-food sector. Mayor Kwon stated, “The opening of the Buan Agri-Food S.M.A.R.T Training Center marks a significant step toward the smart transition of the local agri-food industry. This new system will enable regional companies to develop and market products using Buan’s agricultural resources. Moving forward, we will pursue agricultural and food policy innovation centered 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data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for Buan.”

Professor Jeon Hyo-jin, project lead at Jeonju University’s RISE Center and faculty member in the Graduate School of Food Technology, added, “Jeonju University will continue to support talent development in the agri-food sector and build smart infrastructure for product development. By expanding linkages with the Saemangeum region, we aim to establish a loconomy hub and strengthen our role as an educational center for agri-food and biotechnology.”

The joint effort between Jeonju University’s RISE Center and Buan-gun to establish a S.M.A.R.T system in the agri-food industry aims to cultivate Buan’s agricultural resources into a specialized food-tech sector and build a loconomy-based innovation hub. Through regionally driven content commercialization, the project focuses on:

S (Smart Automation): Building automated agri-food systems

M (Market-oriented Development): Developing market-driven products

A (Agri-Food Tech): Advancing food-tech business models

R (Regional Innovation): Fostering regional innovation in agri-food

T (Tech-driven Growth): Strengthening technology-based agri-food sales clusters

By leveraging the university’s research capabilities, the initiative aims to support regional industrialization, accelerate agri-food technology development, and expand youth entrepreneurship in the area

JJU Holds 2025 Christmas Lighting Service, Sharing a Message of Hope with the Community

Jeonju University (President Ryu Doo-hyun) held its 2025 Christmas Lighting Service at the university’s main building on December 4, reaffirming the meaning of Christmas and sharing a message of hope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annual year-end event has become one of the university’s signature traditions, emphasizing service and connection with the region.

The service featured a sermon by Professor Lee Jin-ho of the Office of Mission and Service, who preached on Luke 2:8-12 under the title “Good News of Great Joy.” Professor Lee reminded attendees that “the birth of Jesus Christ is God’s promise that brings joy, not fear,” and encouraged the campus community to become bearers of light and hope both within the university and throughout the region.

Following the sermon and praise, the lighting ceremony began as the Christmas installations in the main building’s lobby illuminated simultaneously, creating a warm and inspiring atmosphere. The lobby glowed with the light of Christmas as faculty and staff joined in praise beneath the decorations,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serving the local community.

President Ryu stated, “Jeonju University is not only an educational institution but a community that grows together with the region. Following the light of Christmas, we will continue to practice love and sharing and strengthen our engagement with the local community.”

This year’s lighting service extended beyond a simple campus event, becoming a meaningful gathering that conveyed the true message of Christmas in collaboration with local churches. As Christmas tree lightings and praise celebrations continue throughout Jeonju, Jeonju University plans to remain actively involved in fostering warm, positive change within the community.

JJU Technology Holdings Director Kim Jeong-sik Receives KAUTM “Model Counterpart Award” for Excellence i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 Recognized for Contributions to Building a Sustainable Universit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Ecosystem —

Jeonju University (President Ryu Doo-hyun) announced that Kim Jeong-sik, Director of the university’s Technology Holdings Company, received the Model Counterpart Award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t the 20th anniversary ceremon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KAUTM), held on November 27 at the Hwenmulgyul Art Center in Seocho-gu, Seoul.

Director Kim has overseen patent management and technology transfer operations within Jeonju University’s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nd Technology Holdings Company. He ha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revitalizing university technology transfer, supporting local companies, and advanc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the university’s 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 he has played a central role in ensuring that university-developed technologies successfully transition into industrial applications and generate practical, impactful outcomes.

Founded in 2006, KAUTM promotes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in higher education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knowledge sharing among university TLOs nationwide. The award is granted based on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across Korean universities.

In his acceptance speech, Director Kim stated:

“I will continue to strengthen collaborative networks among universities, research institutions, and companies in the region, and work to ensure that outstanding university technologies extend into society and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Director Kim previously received the 2024 Excellence Award for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from the Governor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 currently serves as Chair of the Southwest Regi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uncil, where he leads efforts to build a cooperative regional ecosystem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全州大学成功举办“2025外国留学生掷柶大赛”
—校地协同合作，助力留学生加深理解韩国传统游戏文化—



全州大学（校长：刘斗贤，音译）近日表示，学校于11月29日在 Star Center 哈林宣教厅与全北特别自治道韩国民俗掷柶协会（会长：李贞爱，音译）共同成功举办了“2025外国留学生掷柶大赛”。

本次大赛是大学创新支援项目的一环，旨在为外国留学生提供亲身体验韩国传统游戏文化的机会。大赛由全北特别自治道韩国民俗掷柶协会主办、全州大学承办，是继去年的首届活动之后第二次举行。

值得一提的是，全州大学在韩国高校中率先面向外国留学生系统开展掷柶（Yutnori）传承教育并举办正式比赛，因此被评为其他大学难以见到的、极具独创性的文化交流项目。

本次大赛共吸引了来自7个国家的63名全州大学在校外国留学生参赛，3人一队，共21支队伍，以淘汰赛的方式展开了紧张而激烈的比拼。最终，由越南留学生组成的“359队”（队员：黎红云、杨大丰、陈厚香，均为音译）夺得冠军；亚军由中国留学生组成的“三重奏队”（原队名“Trio”，队员：杨允斌、樊千然、徐在沉，均为音译）获得；季军则由同样来自中国的“英特拉斯队”（原队名“Intrus”，队员：李嘉行、河子然、左嘉琳，均为音译）获得。

在正式比赛开始之前，由一心艺术团（团长：奇活英，音译）带来的传统舞蹈《舞彩扇》为活动拉开序幕，将现场气氛推向高潮，也为在场留学生献上了一段领略韩国传统文化魅力的特别时光。

“359队”队员之一、就读硕士课程的越南留学生陈厚香（金融保险学科，音译）在获奖感言中表示：“能够亲自体验掷柶这一韩国传统文化遗产，并向专家学习比赛方法和战略，我感到非常有意义。实际比赛比在视频网站上看到的紧张刺激得多，与队友一起创造的这些回忆，将成为我难以忘怀的宝贵经历。”

韩国民俗掷柶协会会长李贞爱表示：“本次大赛让外国留学生亲身体验韩国传统文化，并在游戏过程中感受到共同体精神，是一段十分珍贵的时光。看到来自不同国家的留学生通过掷柶自然地交流和沟通，我感到非常欣慰。”她同时强调：“今后我们将继续努力，不仅向本国民众，也向来到韩国的外国朋友广泛传播我们珍贵的掷柶文化。”

全州大学国际交流院相关负责人表示：“全州大学正通过不断扩大各类体验项目，帮助留学生深入理解韩国传统文化，并与当地社会和谐共生、共同成长。掷柶大赛不仅是学习协作精神与彼此体谅的教育现场，更是留学生与当地居民共同参与、交流互动的沟通平台，具有重要意义。今后学校将继续与协会保持紧密合作，进一步完善和发展以传统文化为基础的交流项目。”

据悉，全北特别自治道韩国民俗掷柶协会以被指定为国家非物质文化遗产，运营着多种教育与体验项目，并与全州大学携手，在国内率先面向外国留学生进行掷柶传承教育及正式大赛，并将此项活动向常态化、制度化推进。

全州大学开展“ 暖过冬在韩国”关怀活动
—构建与地方社会共生共荣的发展模式—



全州大学（校长：刘斗贤，音译）近日表示，学校于27日为远离家乡、在韩国专心求学的外国留学生举办了“温暖过冬爱心棉被分享活动”。在气温骤降的冬日里，此次活动旨在帮助留学生们度过一个健康、温暖的冬天。据此共向二十余名留学生赠送了高品质冬季棉被，并送上问候与鼓励。

本次爱心分享活动是“2025信合温暖世间分享活动”的一环，由全州大学信用协同组合（理事长：宋泰珍，音译）赞助实施。

全州大学信用协同组合理事长宋泰珍表示：“在异国他乡求学的留学生，是我们地区和大学宝贵的成员，也是未来的重要人才。为了尽可能减轻他们在经济和情感上的压力，我们每年冬天都会开展这类温情分享活动。今后，信用协同组合将不只停留在物质援助层面，而是进一步扩大支持范围，使地区与大学携手，成为帮助留学生在韩国成功适应与成长的‘导师’与‘陪伴者’。”

来自蒙古的留学生蒙赫扎娅（韩国语研修课程，音译）在活动后表示：“这是我第一次在韩国过冬，准备得不够充分，本来很担心会挨冻。没想到能收到这么温暖厚实的棉被和丰富的礼物，真的非常感动。多亏了学校和当地社会的关心，这个冬天我可以更安心地专注学习了。”

据悉，全州大学国际交流院为帮助外国留学生在当地社会稳定生活、安心学习，全年运营多种支持项目，包括韩国文化体验、“JJ-国际伙伴项目（JJ-International Buddy Program）”、寄宿家庭（Host Family）、韩国语能力强化课程、与地方社会联动的文化课堂以及个性化就业衔接项目等。同时，学校还通过与地区企业和机构的合作，不断扩大面向留学生的奖学金规模，并持续提升生活支持服务的质量，努力打造大学与地区社会共同成长的共生发展模式。

미 대사관, 10년 반복된 염전 노예 사건에 의문...

주한 미국대사관이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 착취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해 최근 진상 파악에 나섰다. 대사관은 피해자 변호인과 장애인 단체를 면담하며 사건이 10년 넘게 반복된 이유와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위에 의문을 품었다.

미 국무부는 매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이번 사건은 한국의 등급 평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해당 보고서는 각국을 1~3등급으로 분류하며, 한국은 2022년 2등급으로 강등된 바 있어 추가 하락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이주형 교수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은 이러한 보고서를 글로벌 공급망 실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며, 이러한 사건이 반복될 경우 통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한국 정부가 할 일을 왜 미국이 하나”라는 비판과 “국제적 망신”, “부끄럽다”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러·우, 평화 구상안 협상 ‘상당한 진전’...전쟁 종식 속도불나

장기화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환점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현지 시각)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안을 기반으로 제네바에서 협상을 진행한 결과, 양측이 핵심 쟁점 다수에서 이견을 크게 좁히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행사에서 “종전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언급한 데 이어,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26개 이상의 조항 중 남은 쟁점이 “넘기 어려운 장애물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협상 속도가 붙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 측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라고 밝히며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최종 종전을 위해서는 러시아 측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앞으로의 답판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국제 정세뿐 아니라 최근 산유량 동결 방침을 재확인한 OPEC+ 회의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